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自体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와 關聯된 北韓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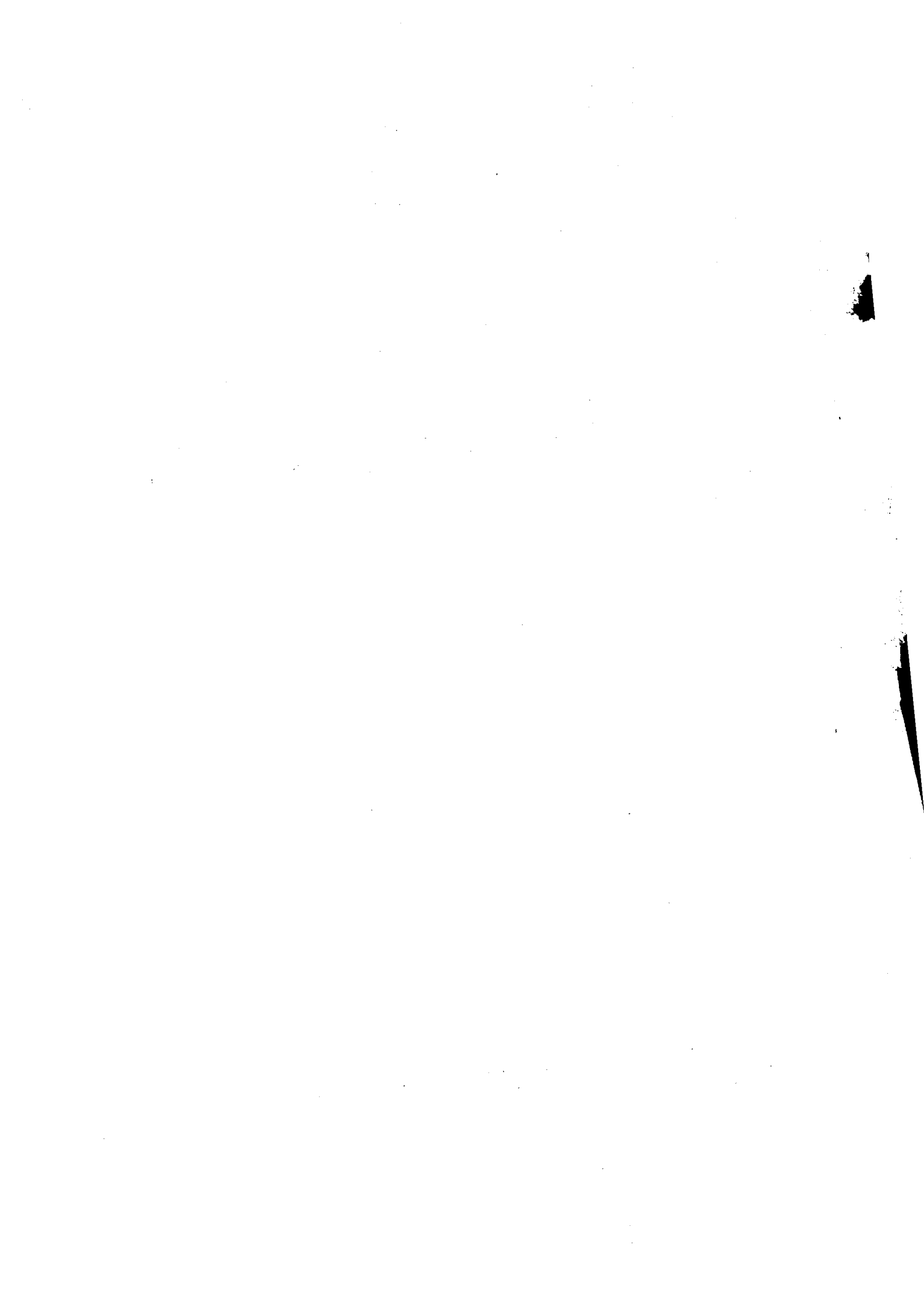
北韓調査研究—經濟

北韓 經濟體制의 變動要因 分析



旭 (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目 次

1. 序 論	5
가. 研究의 目的·方法·範圍	5
나. 經濟体制의 概念定義와 北韓經濟体制의 狀況的 特徵	7
(1) 經濟体制의 概念 定義	7
(2) 北韓經濟体制의 狀況的 特徵	8
2. 社会主義 經濟体制의 變動內容 分析	10
가. 經濟管理体制의 類型과 体制變動의 類型	10
(1) 經濟管理体制의 類型	10
(2) 經濟体制變動의 類型	12
나. 經濟体制變動의 動機와 變動內容의 一般的 形態	14
(1) 經濟体制變動의 動機	14
(2) 變動內容의 一般的 形態	16
(가) 經濟計劃에 伸縮性 導入	16
(나) 企業運營의 自律性和 企業利潤制度의 導入	17
(다) 企業運營의 權限과 責任의 擴大	17
(라) 價格體系에 對한 改革	18
(마) 東西貿易의 擴大	19
다. 各國別 變動內容과 問題點	22
(1) 소련	22
(2)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23

(3) 루마니아·폴란드	24
(4) 불가리아·東獨	24
(5) 유고슬라비아	25
라. 改革의 展望	25
3. 北韓經濟体制의 變動要因分析	27
가. 變動過程과 內容構造의 特徵	27
(1) 變動過程	27
(2) 內容構造의 特徵	30
나. 經濟体制의 變動要因	33
(1) 經濟內的要因	33
(가) 經濟計劃目標의 政治性和 效果性	33
(나) 計劃體系의 集權性和 非科學性	34
(다) 生産管理體系의 矛盾性	36
(라) 閉鎖的 自立體系의 限界性	37
(마) 産業의 部門間 및 部門內 不均衡構造의 深化	39
(바) 過渡한 軍備投資와 軍事管理費의 膨脹	41
(2) 經濟外的要因	45
4. 展 望	46
가. 北韓經濟体制의 改革의 展望과 限界	46
나. 東·西經濟体制의 收斂可能性의 展望	47

(1) 混合体制로의 移行	47
(2) 「틴버겐」의 収歛假說의 内容要約.....	48
(3) 接近可能性의 現實的 兆朕	50
(4) 批 判	51
다. 南北韓經濟体制의 接近可能性의 展望과 結論	52

1. 序 論

가. 研究의 目的·方法·範圍

(1) 社會主義諸國은 經濟發展을 全적으로 計劃方法에 依해 推進함으로써 必然的인 誤謬를 犯하고 있다. 「도브」(M. Dobb)의 말대로 經濟의 計劃化에는 人口의 變化, 人間慾望의 變化, 勞動生産性에 대한 勞動者의 創意性의 變化等の 未知數와 같은 第一次的 不確實性이 많기 때문에 計劃化의 限界性이 露出되는 까닭이다. 註1) 中央集權的計劃經濟體制는 그 計劃內容決定에 執權者의 選好函數(Head Preference Function)를 反映하게 되며 國家構成員의 集團的 選好函數(Community Preference Function)를 올바로 反映하지 못하기 때문에 經濟發展과 社會成員의 慾望에는 큰 蹉跎이 생기게 마련이다. 「미세스」(I. V. Mises)는 計劃經濟體制下의 經濟計劃이 厚生을 極大化하지 못하는 理由로서 1) 消費財 交換時 貨幣機能의 部分的 價值尺度로서의 機能의 制限, 2) 統一된 價值測定單位의 不存在, 3) 「이니셔티브」나 「모티베이션」의 欠如로 生産效率이 不進하며, 客觀的 使用價值(Objective Use Value)만 가지고 主觀的 使用價值(Subjective Use Value)가 代置되지 못함, 4) 生産財의 交換市場의 不存으로 合理的인 社會主義的 計算이 困難, 5) 勞動價值說은 相對價値의 役割을 喪失하게 된다는 것. 註2)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諸問題點으로 인하여 社會主義經濟體制는 끊임없는 內部修正을 겪어야만 하며 實際로 소련과 東歐諸國은 상

당한 水準의 改革을 시도해왔다. 어느 社會에서나 國民經濟의 發展은 經濟體制를 變動시키며 經濟體制變動은 國民經濟를 더욱 發展시키는 바탕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歷史上 類例없는 閉鎖的인 強制的 社會主義形態를 取하고 있는 北韓은 教條主義的 王朝政權의 命脈維持를 위하여 不可避하게 抬頭되는 修正主義의 波及을 두려워하며 經濟體制變動에 매우 消極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다. 이런 態度는 經濟發展에 根本的 障礙가 되고 있음은 勿論이나 改革과 政治體制의 弱化와의 涵數關係를 意識하여 決斷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看過할 수 없이 登場하는 많은 改革要因들을 外面하기 어려운 狀況에 처해있으므로 지극히 部分的이고 彌縫的인 變動을 試圖하고 있다.

따라서 本研究의 目的은 北韓經濟體制를 變動시키는 基本要因이 무엇인가를 分析하고, 變動의 可能性 및 變動의 幅과 限界를 가늠해 봄으로서 앞으로 北韓政權의 變化조짐을 豫測하는데 參考資料를 提供하고자 하는데 있다.

(2) 研究의 方法은 體制的方法 (Systems Approach) 과 歷史的方法에 依拠하여 文獻調査와 既存資料를 整理·分析·綜合하였고, 共產圈諸國의 經濟體制變動要因을 詳細히 考察하여 相互 比較함으로써 體制變動의 一般性和 個別性を 巨視的 (macro) 水準에서 展望할 수 있게 하였다.

(3) 研究의 範圍는 序論에서 經濟體制의 範圍를 간단히 論議한 後 北韓經濟體制의 特徵을 概括적으로 記述하였다. 이어 社會主義經濟

管理体制의 類型과 体制變動의 類型을 살피고 소련을 비롯하여 東
歐諸國의 經濟体制 改革內容과 問題點을 要約하여 앞으로 北韓經濟
体制의 變動方向과 水準을 豫測하는데 參考가 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北韓經濟体制의 構造的 特徵과 變動要因을 주로 經濟內的
要因을 中心으로 살펴보고 經濟外的要因도 考察하였다. 끝으로 北
韓經濟体制의 改革의 展望과 東·西經濟体制의 收斂可能性을 「틴버
겐」(J. Tinbergen)의 「收斂假說」³⁾을 中心으로 展望해본 後
南北韓經濟体制의 接近可能性을 考察하였다.

나. 經濟体制의 概念定義와 北韓經濟体制의 狀況의 特徵

(1) 經濟体制의 概念定義

廣義로 보면 經濟体制란 經濟生活을 構成하는 經濟意識, 經濟
秩序, 技術을 統一的으로 把握한 것으로서 이들 各要素들은 各者가
對立되는 諸原理를 가지므로, 어떤 範疇에 의해 몇개씩 묶어보면
여러種類的 類型(Pattern)이 나타나며 歴史的으로 限定을 받는
다⁴⁾ 이런 意味의 經濟体制는 國家形態의 經濟的 表現이며 全体社
會를 表出한 政治的 イデオロギ의 具體化라고 할 수 있다. 廣義
의 經濟体制를 「資源配分形態에 關한 經濟機構」와 「生産手段의
支配的인 所有形態」를 基準으로 하여 分類해 보면 現在 ①資本主
義的 市場經濟体制 ②資本主義的 計劃經濟体制 ③社會主義的 市場經
濟体制 ④社會主義的 計劃經濟体制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⁵⁾

狹義의 經濟体制는 社會体制(Social Systems)의 下位体制(Sub

Systems)로서 다른 下位体制와 境界를 지니며 独自の 構造와 機能을 遂行하는 体制를 意味한다. 「파슨스」(T. Parsons) 등의 体制理論家들에 의하면 下位体制는 上位体制 및 다른 下位体制와 力動關係를 通하여 自己体制를 維持해가는 開放体制(Open Systems)이다.⁶⁾ 이런 意味의 經濟体制는 環境과의 關係에서 投入과 產出의 交互作用을 通하여 構造와 機能이 變動하는 것이다. 여기서 論議하는 經濟体制는 狹義의 것이 主가되며 巨視的(macro)인 것과 微視的(Micro)인 것이 包含된다.

(2) 北韓經濟体制의 狀況의 特徵

北韓經濟体制는 政治와 表裏의 關係를 이루며 經濟自體의 自律性 내지 經濟的 合理性이 매우 낮은 것이 特徵이다. 때문에 北韓 經濟体制의 變動은 獨裁型의 強制的 社會主義体制가 갖는 政治的 限界로 因하여 그 幅에 있어 狹小하고 그 水準에 있어 매우 部分的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들의 表現대로 「政治밖에서는 經濟發展의 어느 한 問題도 解決될 수 없는⁷⁾ 基調위에서 經濟体制가 運營되고 있다. 北韓經濟体制는 안에서 政治体制의 외 밖에서의 中共·소련 등의 政治体制와 깊은 涵數關係가 있으므로 變動水準도 上典國의 改革水準을 넘어설 수 없는 制約條件을 갖고 있다. 北韓經濟体制는 「體系가 變數사이의 秩序있는 關係패턴(Orderly Pattern of Relations Among Variables)⁸⁾」이라고 말한 「써튼」(F. X. Sutton)의 定義가 바로 맞지 않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면서도 政務院 산하

의 經濟機構는 무려 9個의 部와 7個의 委員會가 있으며, 強制的, 集中的 開發을 通하여 一定水準까지 經濟構造가 複雜化되었다. 從來의 恣意的·政治的인 經濟管理方式으로는 더 이상의 發展이 不可能함을 認識하고 있으면서도 經濟体制의 自律性 強化가 政治体制의 弱화 내지 崩壞要因이 되는 것이 두려워 根本的인 突破口를 못하고 있는 것이 現在 北韓經濟体制의 狀況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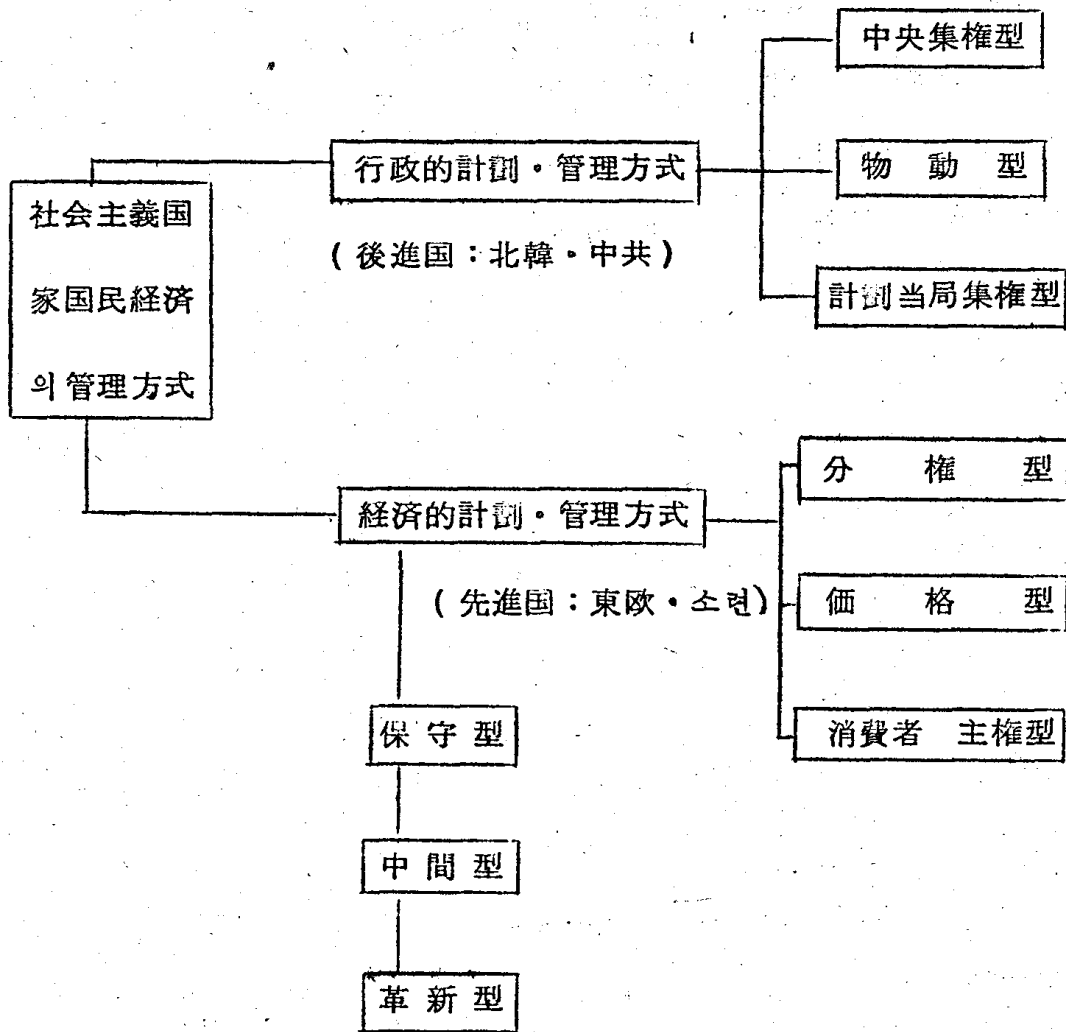
2. 社會主義 經濟體制的 變動內容 分析

가. 經濟管理体系의 類型과 經濟体制變動의 類型

(1) 經濟管理体系의 類型

一般的으로 社會主義 經濟体制은 自由型和 強制型으로 分類된다. 自由制 社會主義는 「랑게」(O. Lange)의 競爭的 社會主義로서 生産手段은 國家가 장악하지만 價格이 成立되고 職業選擇과 消費選擇의 自由가 있는 經濟体制이며, 強制的 社會主義는 消費選擇과 職業選擇의 自由가 制限되고, 公定價格과 命令에 의해 經濟가 運營되며 國家自体의 慾望을 反映한 計劃內容을 中央計劃當局이 獨斷으로 決定한다. 전형적인 強制的 社會主義 經濟体制인 北韓은 行政的 計劃管理方式을 取하고 있는 中央集權型, 物動型, 計劃當局 主權型 經濟体制⁹⁾ 라고 할 수 있다. 經濟의 發展 정도에 따라 社會主義 國家의 國民經濟 管理方式이 달라지며 이를 圖解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 社会主义国家 国民经济의 管理方式 類型 10)



中央集權型은 投入産出을 計劃当局이 決定하며, 物動型은 投入·産出決定時 데이터를 物動的으로 調整한다. 計劃当局 主權型은 計劃当局의 選擇에 依拠하여 經濟를 運行한다. 分權型은 企業이 投入産出을 決定하며 價格型은 投入·産出決定時 데이터를 經濟計算的으

로 調整하는 型이다. 消費者主權型은 消費者 選擇에 依拠하여 經濟를 運營하는 型이다. 行政的 計劃·管理方式은 後進國인 北韓과 中共이 취하고 있으며 經濟的 計劃·管理方式은 社會主義 先進國인 東歐와 소련이 취하고 있다. 經濟的 計劃·管理方式에서 保守型은 市場機能이 計劃機能에 對해 補助的 機能을 하는 型으로 소련, 東獨, 폴란드가 이에 속하며, 中間型은 市場機能과 計劃機能을 同等하게 併用하는 型으로 체코와 헝가리가 이에 속한다. 革新型은 計劃機能보다 市場機能을 優先하는 型으로 유고만이 이 型에 속한다.

(2) 經濟體制變動의 類型

社會主義 國家들을 自由化의 水準에 따라 적어보면, 유고-헝가리-체코-불가리아-東獨-폴란드-소련-루마니아-알바니아-中共-北韓의 順位가 된다. 社會主義國家의 經濟體制變動도 역시 經濟發展과 函數가 있다. 즉 國民經濟가 發展하면 經濟體制가 變動하며 經濟體制가 適應性있게 變動하면 그들 바탕으로 國民經濟가 發達된다. 社會主義國家中에서 比較的 높은 水準에 到達한 國家만이 外延的成長 (Extensive Growth) 으로부터 內包的成長(Intensive Growth) 또는 集約的 成長을 이룩하기 위해 經濟體制를 變動시키고 있다.

그러나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變動은 前述한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의 維持를 위하여 스스로 變動의 限界를 設定하고 있어 西方側에 비해 아직도 매우 硬直的이다. 「윌렌스키」(J. Wileznski)는 經濟의 管理組織과 資源安配의 側面에서 體制變動의 類型을 다음과 같

이 4 個型으로 나누고 있다.¹¹⁾

(가) 中央集權的 行政管理体制型

(Bureaucratic Centralized Model)

經濟計劃과 管理는 中央当局이 장악하고 下部機關은 裁量權이 없
이 執行만 하며 生産指標는 物量單位가 된다. 現在 알바니아, 北
韓이 이 体制에 속한다.

(나) 計量計劃的 管理制度型

(The Planometric Centralist Model)

數理的技法에 의해 計劃을 樹立하며 價格은 數理模型의 解答으로
設定된다. 生産單位에 대해서는 生産活動과 價格面에서 相當한 裁
量權이 부여되므로 資源의 最適配分이 어느정도까지 達成될 수 있
다. 그러나 컴퓨터가 가지는 基本的인 能力의 限界와 專門技術者
의 不足으로 現實化的 段階에는 오지 못하고 있다.

(다) 制限的 中央集權制度型

(Selectively Decentralized Model)

經濟命令을 내리는 中央機關으로서의 行政機構는 存在하나 行政命
令의 數는 制限되며, 責任權限이 어느정도 下部機關에 委任되어 있
다. 收益性이 企業成果의 判斷指標가 되며, 價格은 中央当局이 生
産原價에 準하여 操作하므로 價格決定過程에 獨斷要因이 存在한다.
이 体制는 制限된 範圍內에서 企業의 이니셔티브, 消費者主權을 擁
護하려는 立場이나 아직도 資源配分이 稀少性選好라는 效率的 基準
에 依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現在 이 模型을 援用하는 傾

向이 社会主義諸国에서 增大하고 있으며 알바니아와 유고를 除外한 大部分의 東歐諸国이 이 形態를 취하고 있다.

(라) 市場補完型 (Supplemental Market Model)

市場機能에 의해서 經濟行爲가 행해지고 價格은 原則으로 需要供給의 條件에 의해 決定되며 資源의 效率的 利用을 誘導한다. 經濟計劃은 장래의 대체적 目標을 提示하며 長期的·巨視的 眼目에서 調整的 機能을 한다. 오타시크 (Otasik) 는 이를 指向計劃 (Orientation Planning) 이라고 했으며 이의 內容은 ① 消費와 投資의 比率 ② 各部門間的 生産比率 ③ 企幹産業의 育成計劃에 局限하고 있는 것이다. 체코와 헝가리는 現在 이 段階로 오고 있으며 유고만이 完全히 이 体制을 維持하고 있다.

<表 2 > 社会主義 計劃經濟의 類型

中央集權的 管 理体制型	数理計劃型	制限的 中央 集權型	市場補完型
北韓·알바니아		소련, 東獨, 루마 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유고

나. 經濟体制變動의 動機와 變動內容의 一般的 形態

(1) 動 機

첫째는 外延的成長 (Extensive Growth) 을 追求하는 동안에 非

效率的인 資源의 使用과 浪費가 크게 惹起되었다. 이런 現象은 情報疎通制度의 不備, 中央当局의 一方的 目標設定, 誘因制度의 非現實性에 起因된 것으로서 다만 經濟成長의 鈍化에만 나타나지 않으며 成長을 上廻하는 社会的 費用의 增加, 均衡의 欠如, 生産品の 低質, 技術發展의 무관심등 難題가 重疊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는 消費生活水準의 向上과 消費品目的 多樣化에 대한 國民들의 慾求가 增大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것은 部分的 開放에 따르는 外部的 충격의 效果에도 起因하는 것이다. 셋째는 對西方關係의 擴大를 要望하는 實際的인 經濟的 必要性을 들 수 있다. 12) 1960年에서 1970년까지의 COMECON 諸國의 域內貿易 年平均 增加率이 8.4%인데 소련·COMECON 諸國의 對西方諸國 交易에서는 輸出이 年平均 11%, 輸入이 年平均 12%增加하는 現象으로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COMECON 地域內的 分業依存보다 對西方貿易의 擴大가 資源節約, 規模의 經濟를 可能하게 하며 技術水準向上에도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對西方圈과의 去來擴張의 必要性 增大에도 불구하고 從來의 計劃經濟構造, 國內價格構造의 不合理性, 恣意的 換率構造, 輸出商品의 不足, 品質과 서비스面에서의 對西方競爭力의 不足等으로 效率的인 対応을 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 不可避하게 貿易制度의 再檢討가 論議되고 그것은 結局 經濟改革의 必要性 提起로 連結되었다.

(2) 變動內容의 一般의 形態

一般的으로 共產圈諸國의 經濟體制變動內容을 年代順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① 1950年代에는 經濟計劃과 價格決定의 分權化 導入, ② 産業管理制度와 計劃管理의 分權化 및 生産者價格의 改革(1963), ③ 利率, 利潤制度의 導入과 勞動에 對한 物的 인센티브制度의 導入, 獨立採算制의 強化(1964 ~ 1966), ④ 計劃 및 管理의 分權化 擴大와 價格制度의 伸縮性 增大(1967), 農業에 있어서의 企業會計方式導入 및 擴大(1960), ⑤ 超過貨幣所得의 處理를 生産部門에 貸出하기 爲해 金融制度 및 信用制度의 改革(1969)을 들 수 있다. 經濟體制變動內容을 具體적으로 記述해 보면 다음과 같다.¹³⁾

(가) 經濟計劃에 伸縮性 導入

1) 計劃內容이 物量基準에서 價值基準으로 短期的計劃에서 長期的計劃으로 性格이 變貌되고 있으며 計劃當局과 下部生産單位關係가 緊密化 되었다.

2) 소련은 從來 스탈린 經濟計劃의 欠陷인 計劃의 過渡한 中央集權性, 지나친 官僚主義的인 經濟指導方法을 止揚하고 1955年 8月에는 計劃·賃金·融資·投資等에 對한 企業長의 權限을 擴大 조치하고 中央集權化의 완화, 企業의 創意的 活動 助長, 勞動者의 勞動意慾 提高의 方向으로 漸次 改革을 試圖하였다.

3) 또 中央計劃當局인 GOSPLAN 자체가 機構改革을 通해 長期

計劃作成과 短期計劃作成이 分離되고 GOSPLAN 은 長期計劃作成과 主要經濟問題만 專念하게 되었다.

4) 새로운 潮流로서 最適計劃 (Optimal Planning) 과 最適시스템裝置 (Optimal System Design) 의 創案이 있으나 數理分析 自体의 制約과 價格 및 經濟制度의 非合理性等으로 實効性은 기대하기 어렵다.

(나) 企業運營의 自律性和 企業利潤制度의 導入

1) 經濟關係에서 上下階級關係가 緩和되고 契約에 의한 橫的關係가 增加되었다.

2) 企業에 對한 行政命令이 減少되고 利潤率이 企業活動의 標準으로 認定받게 되었다.

3) 生産「폰드」無償制를 有償制로 轉換하고 一定한 使用料를 支払하게 하여 獨立採算制의 根柢를 強化하였다.

4) 從來의 道德的·思想的·強制的 誘因에서 物質的 誘因으로 漸次 姿貌되고 있다.

(다) 企業運營의 權限과 責任의 擴大

1) 各企業은 生産 및 財政規模의 決定 및 自体計劃의 樹立과 執行에서 보다 많은 自律性を 부여 받으며, 物資供給者나 請負業者등의 選定에 보다 많은 選擇機會를 가지게 하였다.

2) 그러나 一般的으로 東獨改革의 特徵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價格決定權은 中央当局이 留保하고, 經濟單位의 自立性이 工業트러스트 水準에 머무르고 企業水準에 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라) 價格體系에 對한 改革

1) 生産財價格이 社會的所要費用 (Socially Necessary Cost) 에 一致되도록 修正하여 國家의 補助金支拂의 必要性을 減少시키고 보통 企業이 利潤을 남기도록 改革하였다.

2) 價格統制對象範圍의 縮小傾向은 國家別로 다르며 헝가리의 경우 國內 生産 原材料販賣高의 28%, 加工製品의 85%가 直接價格統制對象에서 除外되고 있다.

3) 經營者에 對한 賞與金 決定基準은 國家別로 다르다. 폴란드·東獨은 利益計劃 (Profit Plan) 의 達成에 소련은 利益 및 販賣計劃에, 체코는 附屬價值에 해당되는 總所得 (Gross Income) 에 헝가리는 計劃에 關係없이 總利益 (Total Profit) 에, 불가리아에서는 勞動生産性의 增加와 利益에 의해 決定되고 있다.

4) 東歐諸國에는 價格이 大體的으로 固定價格, 統制價格,¹⁴⁾ 自由價格의 세 가지가 있는데 固定價格을 統制 내지 自由價格으로 轉換시켰다. 그 例로서 체코 (1969年) 는 아래 <表3>에서와 같이 固定價格의 數는 大幅줄고 自由價格의 數는 크게 增加한 것이다.¹⁵⁾

<表 3>

1968 年末

1969 年末 (豫想値)

	高定価格	統制価格	自由価格	固定価格	統制価格	自由価格
都 売	16	80	4	15	40	45
小 売						
食料品	72	—	28	63	—	36
工産品	82	—	18	25	33	42

5) 協同農場에 대해 支払하는 購買價格은 工産品價格에 비해 보다 上昇시켜 農業生産을 자극시키고 있다.

6) 불가리아·체코·헝가리·유고에서는 많은 價格을 市場의 需髮·供給條件에 의해 自由로이 決定되도록 改革의 方向을 誘導하고 있다.

(마) 東西貿易의 擴大

1) 特히 COMECON 諸國의 對西方圈 依存度가 深化됨에 따라 보다 彈力的인 適應力을 갖기 위해 從來 國家의 貿易省과 貿易商社가 独占하던 貿易機能을 下部企業에 어느정도 移讓하였다.

2) 1954 年에 創設된 COMECON 은 前述한 바와같이 東歐圈內에서 域內分業을 促求하였으나 資源節約, 規模利益, 技術進步의 加速化를 위해 西方圈과 交易增大를 希求하게 되었다. 따라서 COMECON 과 EEC는 1960 年代 後半부터 交易量이 크게 增大되기 시작하였는데 먼저 EEC의 對 COMECON 交易構造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4>

E E C의 对 COMECON 交易構造

(单位: 100 萬弗)

区分 年度	全		東欧諸国		中		共		共産国總計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1971	1,366	1,633	2,830	2,599	408	3,744	4,606	4,606	4,606	4,606
			-767	231		+34				△2
1972	1,714	1,625	3,631	3,266	409	466	5,557	5,557	5,557	197
1973	2,676	2,784	5,362	4,464	749	671	7,919	7,919	7,919	868
1974	3,994	4,208	7,733	5,330	965	828	10,366	10,366	10,366	2,326
1975	6,107	4,640	8,413	5,718	1,423	808	11,166	11,166	11,166	4,777
			+1,467	2,695		+615				

資料: GATT, Annual Report 1975 ~ 1976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EEC의 对蘇輸出額은 1971年 对比 1975年の 輸出額이 무려 5배나 늘었으며, 对東歐諸国이나 中共에 对한 輸出額도 약 4배가까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全体的으로 EEC의 对共產圈交易은 1971~1975年 期間 中 輸出 3.5倍, 輸入 2.4倍가 增加되고 있다.

또 1950年, 1960年, 1970年の 共產圈諸国 貿易總額과 COMECON 域内貿易 增加現況 및 对自由圈 貿易額 增加趨勢를 보면 다음과 같다. COMECON의 域内貿易額에는 中繼輸出額과 再輸出額이 包含되어 있다.

〈表5〉

東西貿易의 增加狀況

(单位: 10億弗)

	1950年	1960年	1970年
共產圈諸国貿易總額	10.7	33.8	71.7
COMECON 域内貿易	8.2	26.6	61.2
对自由圈貿易額	4.0	9.9	27.0

資料: 소련 東歐經濟速報, 1971.

다. 各 國 別 變 動 內 容 과 問 題 點 16)

(1) 소 련

(가) 內 容

코쉬킨의 價 格 改 革 의 主 要 內 容 은 다 음 과 같 다.

- 1) 總 生 產 量 보 다 売 上 利 潤 率 을 企 業 成 績 의 主 要 指 針 으 로 設 定
한 다.
- 2) 各 生 產 單 位 는 產 出 · 投 入 의 構 成 決 定 에 多 少 의 自 由 를 가
진 다.
- 3) 資 本 消 耗 防 止 를 위 해 企 業 은 固 定 資 本 과 流 動 資 本 에 利 子
를 支 払 한다.
- 4) 生 產 單 位 는 投 資 및 勞 働 者 · 經 營 者 雙 方 에 보 너 스 支 払
을 위 해 利 潤 의 보 다 큰 部 分 을 留 保 한다.
- 5) 價 格 은 品 質, 耐 久 性, 消 費 者 가 얻 는 經 濟 的 效 果 를 고 려
해 야 하 고, 社 會 的 必 要 勞 働 을 카 버 해 야 하 며 正 常 操 業 하 는 各 企 業
體 의 利 潤 爭 取 를 確 保 할 수 있 게 한다.

(나) 問 題 點

- 1) 政 治 指 導 者 經 濟 計 劃 立 案 者 들 이 全 體 經 濟 管 理 權 의 掌 握 을
熱 望 하 여 價 格 體 系 의 大 幅 的 改 革 에 低 抗 한다.
- 2) 극 도 로 相 反 된 政 策 으 로 破 行 性 이 들 어 나 고 있 다. 즉 利
潤 導 入 方 式 을 取 하 면 서 도 그 中 核 이 되 는 價 格 과 貨 金 을 繼 統 統
制 하 여 市 場 要 因 을 배 제 하 고 있 다.

3) 企業運營에 対応될 수 있는 彈力的인 配給組織이어야 함에도 共產主義 經濟体制維持上 國家의 計劃下에 非正常的 配給組織을 維持할 수 밖에 없다.

4) 「브레즈네프」 자신도 이 딜레마를 「經濟計劃」과 「經濟盾環」의 不調和라고 실토하고 있다.

(2) 헝가리 · 체코슬로바키아

(가) 헝가리

① 1965年 改革案, 1967年의 社會主義企業憲章 등의 法令을 制定하여 改革에 착수 하였다. 主要內容을 보면, 企業은 生産計劃 作成, 企業內作業組織, 給與規制의 制定權을 가지며 政府는 長期計劃 作成, 새 企業의 設立, 資金貸與에 限定한다. 또한 生産計劃에 市場 需要를 反映하며, 賃金, 價格決定에 伸縮性을 부여하였다.

② 分權的 經濟計劃을 꾸준히 推進해 온 唯一한 國家라고 할 수 있으며 改革의 成功与否 判斷은 時機尚早라고 할 수 있다.

(나) 체코슬로바키아

① 1965年 「오타시크」(Ota sik) 中心의 經濟改革案을 作成하였으며 內容은 數量指標의 廢止, 市場價格의 채용을 통한 企業의 獨立性과 市場關係(Market Relations) 導入을 大幅的으로 容인하는 것이었다.

② 그러나 1968年 8月에 소련軍의 침공으로 改革은 停滯 되었고 最近에 다시 論議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3) 루마니아·폴란드

(가) 루마니아

① 經濟發展이 주로 西方側과의 貿易에 크게 依存하므로 對外貿易面에서 주로 改革이 進展되고 있다. 具體的 內容을 보면, 都売價格改革(1963), 銀行·信用制度의 改革(1968), 外國貿易銀行設立(1968), 外國貿易省의 權限을 企業에 大幅 移讓(1969), 生産企業에 對外貿易에 關한 各種 裁量權의 賦与(1971) 등이다.

② 貿易外의 經濟改革은 經濟發展의 後進性, 指導層의 集權的 性向等으로 부진하다.

(나) 폴란드

① 賃金·價格을 生計費와 生産費의 變化에 対応해서 變化시키는 準市場關係(quasi-market Relation)를 導入했으며, 1965年과 1966年에 經濟体制의 分權化 改革路線이 政府의 政策으로 비로소 登場하게 되었다.

② 그러나 中央當局은 價格의 統制權을 끝내 保有하며, 「勞動者 評議會」나 「工業트러스트」에 自主的 權限을 賦与하지 않고 있다.

(4) 불가리아·東獨

(가) 불가리아

① 1965年에 政府는 企業獨立性, 市場關係導入을 核心으로 하는 「체코, 헝가리型」의 分權化 移行을 承認 하였고, 1967年에 是 物質刺戟의 增大, 銀行貸付에 의한 投資政策의 強化, 銀行制度의

改革을 단행했으며, 1968년에 都売價格과 輸入價格에 대한 改革을 단행하였다.

② 불가리아의 改革은 「체코, 헝가리」와 같이 스스로의 理論的討議를 거친 것이 아니고 소련式 改革을 追從한 것으로서 中央当局에 依한 統制機構가 嚴存하며 諸般改革의 实效性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나) 東独

① 1963년에 價格決定權을 中央当局에 留保한다는 條件으로 生産計劃에 關한 主要決定權을 各 工業트러스트에 위임하였다.

② 價格決定權이 中央当局에 일임되어 있고, 獨立性이 下部企業單位에 미치지 못한다.

(5) 유고슬라비아

1965년의 改革으로서 中央集權的 - 經濟計劃과 訣別하고 市場機能中心의 社會主義體制를 確立했으며, 投資의 分權化, 外國貿易의 自由化 促進으로 開放體制로 轉換되었다.

라. 改革의 展望

社會主義 經濟體制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趨勢로 變動해 왔다.

(1) 社會主義運動初期: 生産手段의 完全國有化, 經濟活動 全般을 中央計劃当局이 掌握함.

(2) 1940年~50年: 均等分配問題조차 解決이 안되었으며, 計劃體制

의 非現實性을 體驗함.

(3) 1960年代:分權的計劃(Decentralized Planning)이 進行되고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로 漸次 轉換하기 始作함.

(4) 1970年代:西方側과 對外去來가 漸次 增大되면서 自由市場體制의 要素의 投入範圍가 크게 擴大됨.

이러한 趨勢는 앞으로도 增大될 것이 分明하다. 그러나 共産黨 員들의 執權慾과 政治範圍의 擴大에 대한 狂的 熱望은 改革이 決코 共産黨의 絶對支配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注目해야 한다. 執權者의 性向은 改革의 幅에 影響을 미치나, 價格制度에 대한 中央當局의 掌握, 私有財産制의 原則的인 否認은 變하지 않는다. 社會主義經濟計劃과 管理制度는 最適計劃모델인 사이버네틱 모델에 의해 說明될 수 있는데 實際의 經濟가 이 모델의 假定처럼 機械的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目標과 成果間의 乖離는 점점 크게되는 惡循環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소련의 일부 經濟學者들은 소위 巨視社會 시스템(macro Social System)이라는 最適콘트롤시스템을 構想하고 있는데 그 內容은 全社會를 自然經濟, 社會로 나누어 이들의 相互 關係속에 計劃經濟가 最適으로 機能하도록 各種 管理技法을 活用하도록 構造化한 것이다.¹⁷⁾ 이런 試圖가 根本的인 數理分析自體의 制約과 計劃體制의 矛盾, 資料未備 등으로 實効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그들이 끈질기게 計劃體制에 執着할 것임을 豫測하게 해주는 것이다.

3. 北韓經濟體制的 變動要因 分析

가. 變動過程과 內容構造의 特徵

(1) 變動過程

資源動員과 人力動員이라는 観点에서 時代区分을 해 보면, 第一期(1945 ~ 1959), 第二期(1960年代), 第三期(1970年代)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第一期(1945年 ~ 1959年)

社會主義經濟體制的 基礎確立期이며 農業經濟를 重工業經濟로 轉換하기 위한 基礎確立期라고 할 수 있다. 前者는 다시 社會主義經濟體制 整備期와 基礎建設期로 区分할 수 있으며, 後者는 戰後 經濟復興期와 社會主義 工業建設整備期로 区分된다.¹⁸⁾ 이 期間에는 土地改革(1946.3), 重要産業과 個人商業까지의 國有化 擴大(1946.8), 리(里)단위의 農業 協同化完成(1958.10)이 이루어졌다. 이 期間에 이루어진 全産業, 全資源의 國有化는 食糧, 生必品の 配給制와 함께 全國民을 黨과 政府의 統制圈외에서 生活할 수 없게 함으로서 人力의 移動과 企業을 완벽하게 統制·管理할 수 있게 되었다. 이 期間의 國·共有 比率推移를 보면 다음과 같다. 共有란 協同組合所有를 의미하나 個人處分權이 없으므로 사실상 國有이며, 農業에 常存하는 私有地는 戶當 30 ~ 50 坪의 菜田을 의미한다.

< 表 6 >

国・共有化 比率 推移 (단위 : %)

年度 分野	1949	1953	1956	1957	1958
工 業	90.7	96.1	98.3	98.7	100
農 業	3.2	32.0	80.9	95.6	98.6
商 業	56.5	67.5	84.6	87.9	100

資料 : 北韓經濟統計集, 国土統一院, p. 39

(나) 第二期 (1960 年代)

自立的 工業基盤을 確立하는 7 個年 人民經濟計劃期이다.

그들의 表現에 의하면 50 年代에는 農業集團化, 商工業의 社会主義的 改造의 完成, 勞動力의 集中的・強制的 管理가 完備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条件下에서 그동안 強圧的인 勞力動員을 통해 重工業위주의 偏向된 物量增加의 成長을 記錄하였으나 60 年代 中半부터는 勞力動員과 技術의 限界로 成長이 크게 鈍化되기 始作하였다. 勞力動員의 限界를 克服하기 위해 밥工場, 탁아소등을 擴大하며, 農村經理의 機械化等を 주장하고 있으며 勞動의 限界生産性的의 低下는 이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1 人當 經濟從業員數의 增加率에 대한 1 人當 GNP의 增加率로 限界生産性を 計算해보면 다음과 같다. 19)

$$\text{공식 : } P = \frac{Y_t / Y_0}{E_t / E_0}$$

P : 限界生産性

Y_t, Y_0 : 각각 期末・期初의 1 人當GNP

E_t, E_0 : 각각 期末・期初의 人民經濟從業員數

이 공식에 의해 勞動의 限界生産性を 계산해 보면, 1953~1956

년이 1.5이며, 1956-59년이 1.2, 1959-62년이 1.0, 1962-65년이 0.9이다.

또 낙후된 기술을急速히 向上시키기 위해 7個年計劃 內容에 1) 全面的인 技術革新 2) 農村經理의 機械化, 3) 技術裝備의 改善, 4) 文化革命 5) 幹部의 이론연마등 技術과 關聯된 項目이 많이 들어있었으며, 勞動黨 中央委員會에서의 報告에 依하면 各 分野에서 技術革新이 促進되어 自立的 工業基盤이 마련되었다고 하였다.²⁰⁾

그러나 實際로는 同計劃을 3年延長했음에도 不拘하고 計劃値에 크게 未達되었으며 技術落後, 不均衡構造의 深化等으로 經濟成長率은 크게 떨어졌다.²¹⁾

(다) 第三期 (1970年代)

自立的 工業基盤의 擴大期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6個年 人民經濟計劃期와 앞으로 實施할 人民經濟計劃期로 区分할 수 있다. 同計劃期間의 主要課題는 1) 工業의 内部構造面 및 原料面의 自立化 企圖; 2) 各産業部門에서 半自動化 또는 自動化의 도모 3) 農業部門에서 高度集約化를 追進 4) 全産業에서의 技術革新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同計劃의 成果는 計劃値에 크게 未達하였으며 이 기간의 成長率은 그들의 発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50年代의 40% 內외에서 13% 內외로 크게 鈍化되었다. 1974年 勞動黨 中央委員 第5期 第8回 總會에서 「全力을 社會主義 大建設事業에 總動員한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全力投球分野가 基本建設戰線, 工業戰線, 農業戰線, 輸送戰線등 5個戰線임을 宣言하고 特別

基本建設戰線이 우선적으로 時急하다」고 실토한바 있다.

(2) 内容構造의 特徵

(가) 所有形態

外形上 国有化와 協同組合所有로 이루어져 있으나 實際로는 國家의 完全한 支配를 받으므로 北韓에서는 일체의 資源이 国有化 되어 있으며, 소비의 國家管理라고 할 수 있는 配給制度와 함께 家屋의 매매, 自由로운 移轉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生活手段과 消費生活의 國家所有라고 할 수 있다. 北傀의 資料에 의하면 1949년에 私的所有가 農業이 96.8%, 工業이 9.3%, 商業이 43.5%, 였으나 1958년에는 工業과 商業에 私所有가 하나도 없으며 農業의 1.4%의 私有라는 것도 소유권이 없이 耕作權만 있는 戶當 30 ~ 50坪의 菜田을 뜻한다.²²⁾

(나) 計劃體系

政治·軍事目標下에 行政的·他律的으로 運營되는 經濟管理體系下에서 計劃體系는 軍의 作戰體系와 같이 中央集權的·包括的·下向的·一方的·硬直的·命令的인 것이 特徵이며 法的性格을 띤 計劃內容은 実績과 크게 乖離되는 非現實的이고 非科的인 것이 特徵이다.

(다) 生産管理體系

北傀의 生産企業은 黨과 行政府의 二重的 管理統制下에 있다. 中央企業所는 政務院關係委員會 및 部의 管理下에 있으면서

同時에 党委員會에 하의 中央企業所 党委員會의 統制를 받으며 道級 및 地方企業所도 各各 該當되는 人民委員會와 党委員會의 二重管理統制를 받는다. 管理体系의 核心이라 할 수 있는 工業의 管理体系인 大安의 事業體系와 農業의 管理体系인 靑山里方法을 体系的 側面에서 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大安의 事業體系 : 計劃의 一元化와 細部化의 具體화된 形態인 同體系는 i) 工場 党委員會를 最高指導機關으로 하는 集團指導體系이며 ii) 綜合的 集中的 生産指導體系이며 iii) 中央集權的 資材供給體系와 後方供給體系로 組織되어 있다. 23)

② 靑山里方法 : 軍人民委員會의 活動體系는 里를 하나의 生産單位로 하여 計劃作成, 勞動力配置등 行政的指導를 하고, 組織員이 農業 및 畜産事業을 組織하며 ii) 軍党委員會의 活動體系는 直接 組織과 지도機能을 遂行하여 形式主義, 官僚主義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 流通消費體系

生産財와 消費財 流通은 全적으로 國營(協同組合 19.2% 包含)이며 農民市場은 全体 小販流通額의 0.6%에 該當된다. 24)

1960年度의 北韓의 商店數 構成內容을 보면 國營 7,039 個와 協同組合經營이 3,594 個로 되어있다.

<表 7 >

商店数와 構成内容 (1960)

区 分	숫 자 (個)	比 率 (%)
国 營	7,039	66.2
協 同 組 合	3,594	33.8
總 計	10,633	100.00

(資料 : 北韓經濟總計集, P. 844)

이것은 消費生活이 完全히 國家에 依해 統制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소비재의 量的 制限을 加해 主要 配給소비재를 抑制하며, 非配給品目은 超高率의 去來稅를 부과하여 사실상의 購入을 막고 있다.

(마) 貿易体系

貿易部는 對外貿易全般을 統制하며, 산하의 國際貿易促進委員會는 民間團體로 위장하여 非外交國과의 各種 商去來關係를 맺고 其他 國營인 國內貿易商社와 海外業體間의 連繫業務를 遂行한다. 國營이면서 個別去來의 당사자가 되는 貿易商社가 조선설비輸出商社等 20餘個가 있으며, 對外決裁를 爲해 1959年에 設立된 貿易銀行이 있다. 25)

나. 經濟体制의 變動要因

社會主義諸國은 대체로 유사한 經濟体制變動을 經驗하고 있으므로 前述한 社會主義 經濟体制의 變動要因은 大體로 北韓의 境遇에도 有效한 資料가 될 수 있다. 다만 北韓은 아직도 後進的인 強制的 社會主義体制로서 특히 金日成의 教條主義的이고 歸屬主義的인 王朝化体制의 矛盾과 硬直性이 滲滿하여 經濟發展→經濟體系變動→經濟發展→經濟體系變動의 過程이 크게 制約되고 있음으로 變動의 水準과 幅은 매우 微微하고 緩慢할 것이 豫想된다.

(1) 經濟內的 要因

(가) 計劃目標의 政治性和 效果性

北傀의 經濟計劃은 金日成과 그를 위요하는 幹部黨員들의 選好函數로서 社會全體成員의 選好函數(Community Preference Function)를 充足시킬 수 있다는 政治的 假定을 前提하고 있으나 이러한 獨斷的 假定으로 兩者가 一致될 수 없고, 制限된 資源으로 兩者를 同時에 滿足시킬 수 없음은 勿論이다. 소수의 選好函數로 全體의 限界均等의 原則을 達成할 수 없으므로 「파레토」의 最適狀態(Pareto optimality)에 이룰수 없기때문에 심각한 資源낭비가 隨伴된다. 이런 動機에서 形成되는 經濟目標와 內容은 自然히 經濟의 效率性보다는 目標達成度와 연관된 效果性을 重視하게 되어 商品의 高價와 低質, 資源의 낭비, 商品의 過剩과 不足現象을 隨伴하게 된다. 計劃作成과 政治·行政構造의 役割을 보면

國家主席－計劃의 基本方向設定, 党中央委員會－計劃內容의 輪廓確定, 中央人民委員會－計劃內容의 合法化, 政務院會議－計劃內容의 調整, 國家計劃委員會－計劃內容의 具體化이다. 김일성만이 가지는 소위「党性」이라는 萬能尺이 있어서 이에 위배되는 如何한 合理的인 目標도 容納될 수 없는 것이다.²⁷⁾

(나) 計劃體系의 集權性和 非科學性

政務院산하의 國家計劃委員會는 經濟發展推進의 過程에서 全資源과 生産手段을 掌握하여 指示的計劃(Indicative Plan)이 아닌 統制計劃(Controlling Plan)을 作成하고 있다. 國家計劃委員會의 機能은 1) 經濟展望 및 長期經濟計劃의 作成 2) 政務院의 各부와 委員會 및 地方計劃機關에 의해 作成된 經濟計劃案을 調整 3) 經濟計劃의 實施에 의한 監視 및 檢閱 4) 必要的 是正策 樹立이다. 中央의 國家計劃委員會의 산하에는 各道, 市, 郡의 計劃委員會를 設置하고 있다. 計劃作成은 豫備數字作成過程→統制數字作成過程→計劃數字作成過程으로 나누어지며 具體的過程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金日成의 지시에 따라 勞動黨 中央委員會 또는 中央人民委員會는 基本政策을 樹立하여 政務院에 下達→國家計劃委員會는 各部門別 經濟計劃의 細部草案을 作成하여 直營企業체와 地方의 下部計劃機關에 下達→地方計劃機關은 이 草案에 依拠 自体計劃案을 作成하여 下部生産單位에 傳達→下部生産單位는 企業所, 工場등의 勞力者集會에서 決定書 採択→市·郡에서 道·中央으로 逆行→國家計劃委員會는 最終的 目標量과 計劃事項을 綜合한다. 計劃體系의 集權

性은 數 많은 監督機構를 必要로 하는 肥大한 官僚機構를 낳아 많은 官僚와 黨員들이 經濟의 全分野에 걸쳐 無수한 決定을 내리게 하고 있다. 그 結果 業務의 混亂과 重複, 過重한 統計項目과 숫자管理에서 오는 恣意性, 相互矛盾되는 政策決定이 非一非在하게 되었다. 計劃은 法令의 性格을 가지고 있어²⁸⁾ 彈力的으로 狀況適應이 어렵게 되어 있으며, 下部에서는 처벌이 두려워, 中間層以上에서는 功名心에서 虛偽報告가 많아 더욱 잡떠를 못 잡고 混亂이 重疊된다. ²⁹⁾ 經濟知識이 不足한 黨員들의 간섭도 問題가 되며 ³⁰⁾ 金日成自身도 計劃의 失敗와 非科學性에 대해 「거의 20年동안이나 計劃經濟를 運營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이 事業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³¹⁾ 라든가, 「國家計劃委員會는 歴史的으로 지금까지도 한번도 農村經理計劃을 제대로 짜 본일이 없습니다」³²⁾ 등 여러곳에서 失敗를 自認하고 있다. 또 計劃의 非科學性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세워온 計劃은 嚴格히 말하면 計劃이 아니라 統制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³³⁾ 라든가 「우리 計劃은 科學的 打算이 적고……」³⁴⁾ 등 金日成 스스로가 실토하고 있다. 이런 批判的인 지적도 金日成외에는 할 수 없다. 計劃體系의 矛盾을 더 열거해보면, 1) 作成體系의 非自律性和 集權化, 2) 效率的으로 運營되는 審査分析機構의 不在, 3) 公正한 評價와 合理的 要求를 反映할 수 있는 言論自由의 不在 4) 陽性化, 多樣化, 下部化된 意思決定體制의 不在, 5) 科學化된 情報管理體制의 不在, 6) 科學化된 統計資料의 不足과 電算化시스템의 未發達, 7) 費用效果分析,

体制分析等 各種 管理技法의 活用이 어려운 構造등을 들 수 있다.³⁵⁾

(나) 生産管理体系의 矛盾性

北韓의 生産管理体系는 強制性和 規範性を 위주로하는 官僚主義的 命令体系로서 創意性和 能率보다는 思想教育을 통해 量的目標을 達成하려는 劃一的인 效果性爲主의 管理体系이다. 그 結果 前述한 바와 같이 技術이 不進하고 生産品의 低質과 單純化, 資源 낭비, 商品의 不均衡生産 등으로 全体産業의 有機的인 發展에 障礙가 되고 있다. 모든 生産指標는 中央의 劃一的管理下에 指揮統制되며 모든 商品과 用役은 中央에서 策定하는 價格에 依해 公定制로 評價되고 있다.³⁶⁾ 이런 여건하에서 經濟成長의 鈍化要因을 除去해 보 고자 한것이 大安의 事業体系이다. 体制變動의 觀點에서 본 同事業体系의 特徵은 1) 現地指導体系形態 2) 經濟管理에 있어 大衆路線의 導入, 3) 黨委員會에 依한 集團管理制의 採用, 4) 經濟에 대한 黨의 指導를 強化하여 政治活動을 우선적으로 取扱한다는 것이다. 組織管理論의 立場에서 보면 勞動者들을 生産計劃樹立과 作業日程의 決定, 製品檢査等に 參與시켜 勞動生産性和 勞動者의 慾求에 同時에 滿足을 주고자 하는 맥그리거의 「Y理論」³⁷⁾과도 유사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大安体系가 다소의 權限分散的인 措置였기는 했어도 아직도 物質的, 經濟的 刺戟보다 道德的, 精神的 刺戟을 強調하는 体系이며 計劃目標設定과 樹立과정의 矛盾이 屢존하며, 黨·官僚의 專橫的 関与가 不可避한 이상 改革要因이 繼續 축적되게 마련이다.

(라) 閉鎖的 自立体系의 限界性

北傀가 繼續 追求해온 閉鎖的 自給自足形態 (Autarky) 의 經濟建設은 오늘날 東歐諸國의 對西方依存度가 높아가고 東·西貿易이 擴大되는 現象과 逆行되는 것일 뿐 아니라, 國際分業이나 比較優位生産費 概念을 無視하고 生産製品의 原價上昇을 감수하려는 것으로 經濟發展自体와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石油化學工業의 落後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經濟침체의 主要한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은 소련 및 東歐諸國이 加入하고 있는 經濟相互援助會議 (COMECON) 에조차 否定的 態度를 取하고 있는데 그 基本的 理由는 修正主義의 波及으로 現獨裁政權의 維持가 어렵게 될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스탈린式 開發方式과 그 獨裁體制를 답습하고 있는 北傀는 自主路線의 美名아래 國民을 巨大한 兵營에 묶어둠으로서 獨裁體制를 持續시키고 있으며, 소위 自力更生原則이라는 經濟政策도 여기서 緣由된 것이다. 그러나 이 閉鎖主義體制가 經濟成長에 至大한 障礙 (Bottleneck) 로 등장하고 經濟沈滯가 長期化하자 北韓은 6個年 計劃이 후부터는 서둘러서 우선 貿易부터 擴大努力을 始作하게 되었다. 60年代以前에는 社會主義諸國과의 交易이 大部分이었으나 70年代에 들어와서는 다음〈表8〉에서 보는바와 같이 漸次 西方圈과의 貿易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1974年에는 오히려 對共產圈貿易을 超過하였다. 그러나 北韓이 對西方側과의 貿易에서 主로 利用한 것은 直接貿易形態였으므로 곧 基軸通貨의 不足을 일으켜 對外負債償還이 어렵게 되자 對北韓輸出이 줄

어떻게 되어 1975年 부터는 漸次 줄어들고 있다. 閉鎖体制의 限界를 克服하려는 努力은 北韓自身の 經濟發展과 相互涵數關係에 있어 앞으로도 貿易擴大의 努力이 展望되나 自體의 適應力의 限界로 成果는 적을 것이다.

<表 8> 北韓의 圈域別 貿易現況 (單位: 100 萬弗, ()는 %)

区分 年度	總 計	共 産 圈	自 由 圈
1971	866	734.6 (84.8)	132 (15.2)
1972	1,038.7	796 (76.6)	243 (23.4)
1973	1,340.7	820 (61.2)	214 (15.8)
1974	1,980.3	918 (46.4)	1,062 (53.6)
1975	1,906.6	1,032 (54.1)	875 (45.9)
1976	1,486.9	984 (66.2)	503 (33.8)

註: 소련貿易統計年鑑, 各年度版 및 IMF, IBRD, [Direction of trade] 各年度版

OECD [Trade by Commodities] 등을 利用 作成

金東奎, 對外貿易面에서 본 北韓經濟分析, 国土統一院, 1977.

外資導入은 受容能力 (Absorbptive Capacity) 과 償還能力 (Debt Servicing Capacity) 이 前提되어야 하며, 「굴하티」 (R.I. Gulhati) 의 말대로 「外資의 受容能力은 資本의 限界收益率과 社會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割引率이 一致하는 投資의 量」이라고

볼때 北韓은 国内資源의 開發狀態나 投資計劃의 内部均衡面에서 볼때 受容能力이나 償還能力 모두 不備되어 있다. 1975年の 北韓의 輸出構造는 原料 및 一次產品이 65%, 製造業製品이 35%로서 輸出構造의 高度化를 要求하고 있으며 農業과 輕工業의 近代化를 위한 새로운 技術과 設備導入의 必要性 등의 理由로 貿易構造의 擴大 要望은 繼續될 것이다.

(가) 産業의 部門間 및 部門内の 不均衡 構造의 深化

北韓은 스탈린時代의 소련과는 立場이 크게 다른데도 不拘하고 스탈린 式의 開發方式을 그대로 모방하여 6.25도발以來 30年 가까이 4次의 經濟計劃의 推進過程에서 重工業 優先策을 밀고 나왔다. 이 重工業優先策은 金日成의 權力과 밀착된 侵略政策의 要求로 強行된 것이므로 軍需産業위주의 政策이었다. 이런 傾向은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7個年 經濟計劃期間(1961-1970)에도 反映되어 基本建設投資額 87億원 가운데 약 57%인 50億원이 工業部門에 그중 80%인 40億원이 重工業建設에 配定되고 있다.

<表 9 >

北韓의 基本建設投資実績 (1961-1970)

區 分	構 成 比		金額 (北韓貨 : 원)
	對 總 計	對 小 計	
工 業	57 %	100 %	50 億원
重工業	46	80	40
輕工業	11	20	10
農 業	20		17
其 他	23		20
總 計	100		87

資料 : 北韓經濟統計集, 國土統一院, p.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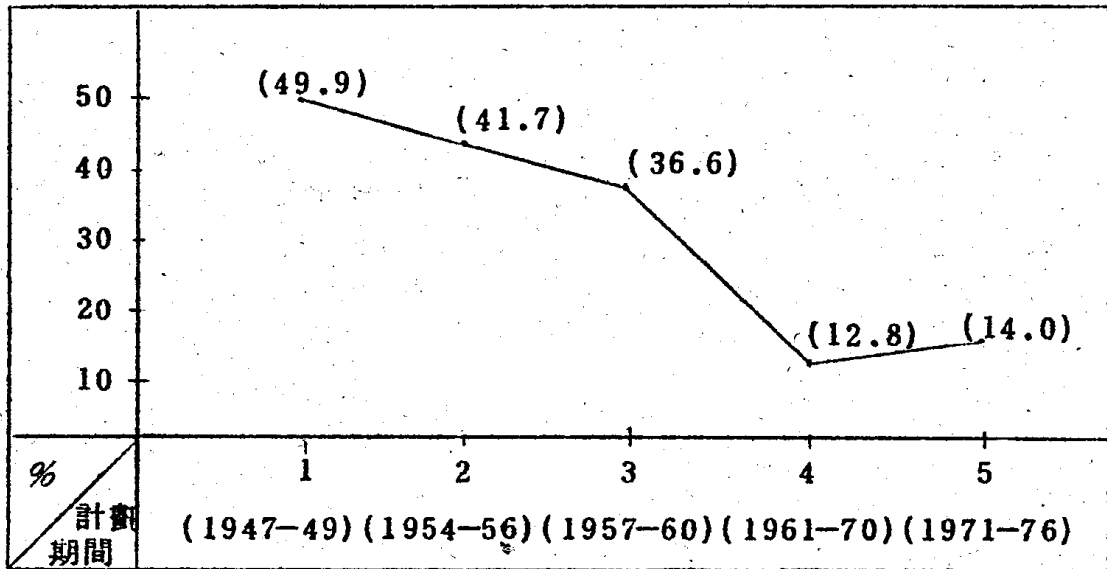
6 個年 計劃에서도 (1971-1976) 基本建設投資額의 49%가 工業部門에, 그중 83%가 重工業部門에 配分되고 있어 重工業 偏向은 繼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非經濟性 投資인 軍需產業에 과중한 投資를 繼續함으로써 財源의 不足, 技術落後의 長期化와 工業과 農業, 生産財와 消費財等 産業 構造의 不均衡을 深化시켰고, 社会間接資本의 不充實을 招來하였다.

이로 인하여 北韓自身の 發表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年平均 工業成長率은 急激히 떨어지고 經濟成長鈍화가 長期化되게 되었다.

<表 10 >

北韓의 年平均 工業成長率 (%)



資料：北傀側發表，北韓經濟統計集，国土統一院，

p. 67 再構成

北傀는 이런 現實의 克服을 위해 日用品産業의 擴大, 重工業基地와 輕工業基地의 産業系列化等を 試圖하고 있으나 더 根本的인 改革이 없이는 큰 實効性을 기대할 수 없다.

(바) 過渡한 軍備投資와 軍事管理費의 膨脹

北傀의 經濟發展의 沈滯要因의 하나가 軍事費의 過重負擔임은 지난 1970年 11月 勞動黨 5次大會에서 支配層 스스로가 自認하고 있는 事實이다. 그럼에도 6個年計劃에서 軍備強化를 重要課題로 삼은것은 (가) 項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經濟計劃에 執權者의 政治野慾을 무리하게 反映하기 때문이며, 그 結果는 計劃과 實績의 큰 蹉跌을 招來하는 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1975 年에 發表된 金日成의 産業配置 5 大原則에서도 “ 國防力增強 考慮 ” 原則을 明白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繼續 軍備增強에 迫車를 加할 것이 豫想된다.

① 北傀의 軍事費 推定

北傀의 軍事費는 그들의 發表에 의하면 年間 歲出額의 16 %인 8 億弗이다.

그러나 北傀의 軍事費는 實際로는 最少限 17 億弗 이상이며 그 推算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³⁸⁾ 즉 超高價의 核裝備를 갖춘 美蘇를 除外하면 대체로 各國의 國防費를 保有兵力數로 나눈 兵 1 人當 軍事費는 1 人當 GNP의 最下 1.7 倍 (中共) 에서 最高 7 倍 (이스라엘) 以上으로 나타나고 있다. 北傀와 動員體系가 유사한 이스라엘의 경우 正規軍 1 人當 軍事費는 2 萬 6 千弗 (1 人當 GNP 의 약 7.7 倍) 이며, 유사시 各각 動員이 可能한 兵力을 合算하면 兵 1 人當 軍事費는 7 千 5 百弗 (1 人當 GNP의 약 2.1 倍) 이다.

北傀는 正規軍이 50 萬名이며 약 400 弗 水準의 (1976 年 IBRD 調査) 1 人當 GNP 를 基準으로 하면 1975 年度 北傀軍事費는 10 億弗을 상회하는 것이다. (兵士 1 人當 2 千弗) 空軍力 維持費만도 5 億弗이 넘는다는 것이 内外專門家들의 共通된 見解이다.

그 外에 特殊部隊와 184 萬의 勞農赤衛隊는 戰鬪能力, 組織, 裝備가 正規軍과 거의 맞먹는 水準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기서는 最下線인 1 人當 GNP 規模로만 換算해도 7 億 3 千萬弗이 된다. 그러므로 北傀軍事費의 總規模는 最少限 17 億弗以上이며 이는 GNP 의

27.6%로서 이스라엘과 같이 세계에서 最高의 軍事費가 되는 것이다.

THE MILITARY BALANCE 誌(1977-1978)에서는 1976年度 北傀의 國防費를 20億6千萬弗로 보고있으며 推定方法과 換率適用의 差異에 따라 差額이 생기나 대체로 20億弗을 넘는것으로 볼 수 있다. 39)

② 軍事費의 膨脹

北傀의 軍事費는 <表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6年까지는 民族保衛費라 하여 歳出總額의 3-4%로 發表해 오다가 1967年에는 國防費라 改稱하면서 31%로 發表하였고 1972年부터는 17%미만으로 發表하고 있다. 하나의 巨大한 兵營이라고 할 수 있는 北韓의 軍事体制에서 年間 所要되는 軍備維持費는 17億弗以上이나 되고 있는데, 이 巨大한 規模의 軍事費가 갑자기 前年對比 10倍로 오르거나 切半으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이것은 1967年 以前에는 軍事費를 다른 項目에 은폐시켜 왔다는 것을 意味하며, 1972年 以後는 南北對話를 意識하여 對外宣傳을 위해 다시 軍事費를 人民經濟費등에 은폐시킨 것에 不遇한 것이다. 1967年 軍事費가 19.0%에서 30.4%로 늘어났을 때는 人民經濟費가 갑자기 약 12% 떨어지고, 1972年以後는 人民經濟費가 갑자기 10%以上 增加하고 있는데, 人民經濟費가 相對的으로 急增했는데도 經濟成長面에서는 急成長은 커녕 크게 鈍化되고 있는 事實만 보아도 人民經濟費 增加分은 實際에 있어서

는 軍事費라는 것을 反証하는 것이다.

<表 11>

北韓의 國防費 膨脹率

(單位：%)

年度	總支出額	人民經濟費	社会文化費	國防費	機關管理費
1966	100	61.6	17.3	19.0	2.1
1967	100	50.1	17.5	30.4	2.0
1968	100	48.9	17.2	32.4	1.5
1969	100	47.6	19.7	31.0	1.7
1970	100	49.2	19.7	29.4	1.7
1971	100	48.0	19.2	31.0	1.7
1972	100	57.3	23.9	17.0	1.8
1973	100	58.4	24.8	15.0	1.8
1974	100	57.7	24.4	16.1	1.8
1975	100	58.0	23.8	16.4	1.8
1976	100	58.1	24.3	16.5	1.1

1960年代初에 中·蘇의 無償援助가 끊어진 以來 北韓은 實質的으로 70 ~ 75%의 착취적 税金포탈을 恣行하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40) 国内財源調達의 限界에 봉착하고 있으며 西方外債의 償還遲延으로 外債獲得도 困難한 狀況에 있다. 이런 与件下에서의 過渡한 軍費支出은 經濟發展에 重要한 障礙가 되고 있는것이다.

다른 共產諸國의 歲出總額에 대한 國防費支出比率을 보면 (1977年) 불가리아가 7.3%, 체코가 6.2%, 東獨이 7.8%, 헝가리가 3.6%⁴¹⁾ 인데 比해 北韓은 32%를 상회하고 있다.

(2) 經濟外的 要因

그들의 表現대로 北韓經濟는 「정치밖에서는 한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다」⁴²⁾는 基調위에 있기 때문에 經濟体制을 움직이는 經濟外的要因은 實로 큰것이다. 經濟가 複雜化되어 問題가 深化될수록 專門的 經濟官僚들의 政治的 地位가 強化되는 것이 常例이나 北傀의 경우는 아직도 빨치산 출신위주의 소위 甲山派가 金日成과 밀착되고 있으며 近來에 약간의 經濟專門家들이 制限된 範圍内에서 浮上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⁴³⁾ 그러나 金正一을 위요하는 소위 熱誠黨員들이 權力的 再構造化를 위해 經濟体制에 깊숙이 관여하여 經濟自體의 問題를 政治的 渦中속에 歪曲시킬 것이 分明하다. 지금까지의 工業化 戰略은 金日成의 唯一思想体制를 顯在化시키는 手段이었으며 恒久的인 革命意識을 助長시키는 大量動員体制의 담보 裝置의 役割을 해왔다. 이런 절실한 政治的 要因으로 因하여 비록 國際環境이 韓半島의 位置를 이데올로기의 肇戰場으로서의 中央國家的 위치로부터 民族主義를 活性化 시키는 沿邊國家的 위치로 조짐變化를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北傀体制의 變化는 根本的으로 部分的이고 微細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強力한 政治的 要因은 經濟体制變動의 水準과 速度를 決定하는 一大의 制約要因으로 繼續 作用할 것이다.

4. 展 望

가. 北韓經濟体制의 改革의 展望과 限界

社会主義諸国の 經濟体制變動에 있어 根本的 制約要因은 政治指導者나 經濟計劃立案者와 같은 行政官僚들이 全國民에 대해 統制權을, 全經濟에 대해 管理權을 行使하고자 하는 政治慾이며, 北韓의 경우도 例外는 아니다. 때문에 소련이나 東歐諸國에서 價格制度의 大幅的 改革이 經濟發展의 核心임을 周知하면서도 그 改革을 주저하고 있다. 北韓經濟体制의 變動展望은 金日成体制의 變動과 깊은 涵效를 갖고 있다. 現体制下에서의 經濟体制變動은 大安의 事業体系나 靑山里方法의 問題點의 部分的 修正, 地方企業에 대한 制限된 自律性의 賦與, 不均衡된 產業構造의 補完을 위한 一部の 機構調整과 末端行政單位의 小幅的 改編, 貿易体系의 下部構造에 약간의 自律的 權限 賦與, 그들方式의 獨立採算制를 늘리면서 物質的 誘因方法의 導入을 약간씩 增大할 것이 豫想된다. 韓國의 国力伸張에 의하여 北韓이 南侵野慾을 完全히 포기하고 經濟發展에 주력한다면 變動의 幅은 다소 넓어질 수 있으며, 金日成이 물러나고, 經濟가 더욱 複雜化됨으로서 機能的인 專門家集團이 政權에 많이 관여할 경우, 經濟体制變動의 幅은 더 커질 수 있으며, 東歐諸國의 60年代 改革水準과 유사하게 될 것이다. 暗示的으로 表現한다면 1980年代 後半期부터는 漸次 높은 水準의 改革要求를 對內外的으로 強要받게 될 것이며, 이를 不可避한 것으로 受容할 可能性이 있다.

이 境遇에는 利率, 利潤制度의 漸進的 導入, 어느程度의 物的誘因에 의한 生産管理体系와 賃金体系, 農村經理에 企業方式의 導入, 어느程度의 消費体系의 多樣化, 計劃体系의 어느程度의 分權化, 銀行·信用制度의 對企業活動爲主로의 伸縮的 改編, 貿易体系의 伸縮的 改編이 豫想된다.

그러나 根本的으로는 私有財産制度를 否認할 것이고, 市場原理를 大幅的으로 受容하지 않을 것이 分明하며 價格体系는 여전히 中央當局이 掌握한채 딜레마를 겪을 것이다. 또한 다른 共產諸國과 같이 改革水準이 中共이나 소련의 水準보다 더 急進的일 수 없으며 自由主義 이데올로기와 資本主義 經濟運行方式을 否定하는 態度에는 妥協이 없을 것이다.

나. 東西經濟体制의 收斂可能性의 展望

(1) 混合体制로의 移行

오늘날 世界의 大部分의 國家는 國民經濟運行에 있어 完全한 國家關與나 完全한 自由放任을 止揚하고 混合体制 (mixed System)의 性格을 追求하는 傾向이 增大되고 있다. 이런 傾向은 一方으로 偏向된 構造가 國民의 福祉向上 與望에 充分히 対応할 수 없다는데서 緣由하는 것이다.

資本主義는 1926年에 「케인스」(J.M.Keynes)가 “自由放任의 終焉”을 發表한 이래 修正을 거듭해 왔으며 그 具體的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公社制度의 擴大와 財政部門의 膨脹
 - 2) 經濟計劃의 範圍와 水準의 增大
 - 3) 國家의 積極的인 社會保障制度의 追求
 - 4) 勞組의 增加와 權限의 擴大로 産業 民主主義의 實現
 - 5) 各種 独占禁止法, 公正去來法 등의 制定으로 自由市場原理에 國家干涉의 增大
 - 6) 國民의 教育, 雇傭, 福祉水準의 增大로 社會平準化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國家責任과 役割이 漸次 增大됨.
- 한편 社會主義國家들은 經濟가 일정水準에 이르게 되면 1960年代의 소련의 修正主義나 유고의 急進的的改革의 方向을 따르는 一般的 傾向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具體的 變化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利潤·利子 등에 市場原理의 部分的 導入
- 2) 유고의 境遇 生産手段의 一部를 私有化
- 3) 消費財選擇의 部分的 許容
- 4) 勞動者 自治原理의 導入
- 5) 生産性賃金制 등의 採用으로 所得構造의 數學的平等이 止揚됨
- 6) 企業管理에 있어서 自主性의 擴大와 經濟權力의 分權化

(2) 「틴버겐」의 收斂假說의 內容要約

「갈부레이스」(J. K. Galbraith)와 더불어 가장 積極的인 收斂論者인 「틴버겐」(J. Tinbergen)의 「收斂假說」(Convergence Hypothesis)의 內容을 項目別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44)

兩体制의 收斂現象 內容 (J. Tinbergen)

項目 \ 圈別	自 由 圈	共 產 圈
經濟에의 接近態度面	巨視經濟의 強調	微視經濟의 比重이 높아감. (소련)
經濟計劃面	指標的, 目標設定的 計劃樹立 傾向	細部的→大綱的 下向的→上向的
經濟行政面	集中化, 集權化傾向	高度의 中央集權化에서 分權化進行
企業經營面	資本과 經營의 分離	勞働者가 企業을 運營한다는 생각을 버린지 오래이며 企業長은 資本主義 國家의 經營者와 흡사함
金 融 面	金融政策의 役割 縮少, 財政政策, 所得政策, 賃金政策의 強化	命令的 運營方式→資金的 誘因方向, 銀行은 投資事業選定과 經濟的 資金供給에 漸次參與
利 潤 面	利潤動機에 依하지 않은 國營事業增加, 利潤의 勞資間 分配	利潤이 企業의 業績評價에 基準이 되고 있으며, 經營者와 勞働者間에 分配되기도함.
所有 制度	重要産業의 國有化增加, 從業員持株制度 普及	어느정도까지 農地의 私有制復活 食糧, 家畜 家內工業, 小売業等의 私營이 생기는 곳도 있음

項目 \ 圈別	自 由 圈	共 産 圈
所得分配面	누진세, 공공서비스 확대, 最低賃金制等 所得平準化增大	上層部, 一般勞動者의 所得間隔增大, 物質的 인센티브制에 의해 더욱 擴大
社会構造面	教育機會, 社会的移動性增大 豊饒化에 따라 階級差別박	勞動者, 農民, 인태리, 党僚, 테크노크라트, 經營者 階層등 階級の 存在가 明白
價格面	市場價格에 對한 政府의 干与 (農産物價格支持, 補助金, 間接稅) 独占價格形成등이 要素費用을 價格에 正確히 反映못하게됨	從來의 固定價格에서 市場價格의 役割이 增大되며 利子, 賃料概念도 費用에 導入됨
消費者役割面	「消費者는 王」이라고 하나 生産者 談合, 政府關与, 廣告의 說得力, 消費慣習等으로 制約	經濟計劃以來 消費者選好가 漸次 重視되고 있으며 所得水準向上에 따라 더욱 重視될 展望이 보임
東歐間의 貿易	去來額이 近來에 急速히 伸張되고 있으며 兩側에서 貿易에 對한 政治的 干与가 漸次 緩和됨.	

(3) 接近可能性的 現實的 兆朕

交通과 커뮤니케이션의 發達로 地域間의 거리가 漸次 좁아지고 있으며 相互 依存이 深化되고 있는 世界에서 東歐諸國은 對西方圈의 經濟協力依存이 增大되고 있다. ⁴⁵⁾ 소련이나 불가리아등 東歐諸國이 貿易擴大의 必要性에 直面하고 있어 貿易增大의 強調를 누차

闡明하고 있기 때문에⁴⁶⁾ 東·西貿易의 幅이 커질 것이 豫想되고 있다. 또한 헬싱키 歐洲安保會議에서 採択된 合意內容 2項에는 東西貿易과 經濟協力の 擴大努力이 包含되었으며 1975年度의 先進 6個國 經濟頂上會議에서도 社會主義國家와의 經濟協力の 擴大를 強調하고 있다. 이러한 諸조짐으로 보아 兩體制의 經濟協力關係는 增大될 것이 確實하며, 相互間 競爭力을 強化하는 과정에서 收斂의 方向으로 變動할 可能性이 크다.

(4) 批 判

國民의 福祉를 極大化 할 수 있는 最適經濟體制는 現在로서는 混合體制에서 밖에 求할 수 없다고 한다면 國民의 福祉向上에 보다 민감하게 反應하는 것은 後進國보다는 先進國이며, 共產圈보다는 自由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混合體制의 指向은 本質적으로 이데올로기의 制約을 받고 있으며 때문에 混合體制의 水準도 一定한 限界를 갖게 된다. 지금까지의 歷史的 經驗으로 볼때 自由를 基本으로 하고 그로 인한 矛盾을 國家가 積極적으로 시정하는 體制가 經濟的 效率性이나 個人福祉 增大와 연결된 社會福祉增大面에서 優越했으며, 人間의 價值高揚과 人格發展에 有利했다는 것은 自명한 사실이다.

「틴버젠」의 「收斂假說」은 지나치게 一般的이기 때문에 特殊한 條件下에서 變質되거나 停滯되는 경우를 輕視하고 있으며 하나의 狀況處方的 現象을 構造變動과 同一視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데올로기의 強力한 制約과 共產主義者들의 政治的 性向을

지나치게 소홀히 하는 感이 있다. 實際로는 하나의 시작이고 兆朕에 不遇한 것이 많으며 항상 修正되고 있는 것이다.

貿易面에서는 相互 必要性을 充足시킬 수 있는 範圍內에서 增大될 것이 確實하다고 하겠다.

다. 南北韓經濟体制의 接近可能性의 展望과 結論

最適經濟体制을 混合經濟体制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면 兩体制는 混合体制의 形態로서 만나야 할 것이나 政治的 이데올로기問題와, 全体와 個人에 대한 基本認識의 갈등은 相當히 長期間동안 經濟体制의 接近을 어느 限界에 固定化할 것이다. 最適体制로서의 接近面에서 볼때 韓國은 自由市場原理를 基調로 하면서도, 低開發國의 構造的 矛盾의 克服과 急速한 經濟成長을 통한 自立經濟体制을 구축하기 위하여 計劃分野를 늘리며 重要基幹産業의 国有化, 公社制度의 增大, 나아가 社会福祉制度의 漸進的 增大를 포함으로서 어느정도의 混合体制的 性格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는 이미 論議된 바와 같이 아직도 後進的·保守的·強制的 社会主義体制로서 매우 硬直되어 있기 때문에 混合体制로서의 接近可能性은 現在 큰 기대를 가질수 없다. 다만 韓國의 不可抗力的인 国力伸張앞에 武力赤化野慾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직 經濟發展에만 全力한다면, 그 과정에서 經濟体制은 갈등속에서나마 變動을 겪게 될 것이다. 그 變動의 可能性과 水準은 (가) 項에서 記述한 바와 같으며, 이 경우 最適体制로의 接近은 완만하게나마 繼續될 것이다.

韓國은 4次 5個年 計劃이 끝나는 1981年에 가서는 이미 先進 國圈에 進入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最適體制로의 接近은 더 順調 로울 것이고 北韓과의 隔差는 더욱 深化될 것이다. 現實적으로 볼 때 韓國의 經濟發展과 国力增大는 目標値를 確實히 達成될 것으로 展望되기 때문에 北韓은 時間이 흐를수록 經濟體制變動을 통한 經濟發展을 試圖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政治體系는 國民 經濟發展과 經濟體系의 相互力動關係에 대한 最終調整者로서 長期間의 經濟沈滯와 混亂에 해답을 提示해야 하며 순전한 彈圧만으로는 解決의 실마리를 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이 硬直된 權力과 침체된 經濟의 渦中에서 合理的인 解決點을 못찾고 韓國을 祭物의 羊(Scape-goat)으로 겨냥할 可能性이 있는 向後 4.5年의 意味는 經濟體制의 變動의 觀点에서도 매우 重要的 것이다. 이 時期에 北韓이 合理的인 解決方案—經濟體制의 變動—을 택할 경우는 勿論, 內部的 權力갈등속에서 和戰択一의 苦惱이 끝내 侵略으로 決行되지 못하고 4.5年을 넘긴 경우 北韓은 어쩔 수 없이 經濟體制變動을 통해 南北韓의 本格的인 競爭에 나서게 될 것이며 南·北韓의 最適體制로의 接近은 希望的인 速度를 보여줄 可能性이 크다고 볼 수 있다.

註

- 1) M. Dobb, An Essays on Economic Growth and Planning, 1960, 第一章 計劃化 參照
- 2) Iudwig Von Mises, [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 in F. A. Hayek, (ed:)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London:Routledge, Kegan Paul, 1935) p.87.
- 3) J. Tinbergen, Do Communist and Free Economics Show a Converging Pattern?, Soviet Studies April, 1961.
- 4) 經濟學大辭典, 博英社, 1969, p. 130.
- 5) 배 손근, 南北韓經濟體制 接近 可能性檢討, 國土統一院, 1976, p10.
- 6) Bertram M. Gross, The state of the nation: Social Systems Accounting, (Tavisatock Publication, 1966). pp. 34-41.
- 7) 경제 사전, 사회 과학 출판사, (평양 : 1970) p. 79.
- 8) F. X. Sutton, [Social Theory and Comparative Politics] in H. Eckstein and D. Apter (eds.), Comparative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1963), pp. 68-69.
- 9) 全應烈, 「計劃經濟와 勞動者」, 北韓政治論, (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6) p. 427.
- 10) 南炫旭, 「北韓經濟計劃體制的 分析」,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7, p. 12.

- 11) J. Wilez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London, 1970, p. 23.
* 李承潤, 共產諸國 經濟体制의 變遷過程研究, 国土統一院, 1977.
- 12) 李承潤, 前揭論文.
- 13) 김종인,北韓經濟体制의 變革可能性과 要因分析 1974. pp. 13-17.
* 李承潤, 前揭論文.
* 趙 淳, 東歐圈의 改革過程分析, 国土統一院, 1973. pp. 21-29.
- 14) 여기서의 統制價格이란 어떤 價格中에서 價格指數의 上·下限을 政府가 定해놓고 그 上·下限度內에서 企業은 各價格을 自由로 調整할 수 있는 價格을 말함.
- 15) Ordrich kyn, "The Rise and Fall of Economic Reform in Czeckoslovakia"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0. pp. 300-306.
* 趙 淳, 前揭論文, p. 34.
- 16) 李承潤, 前揭論文.
- 17) Nicolas Spulber, Socialist Management and Planning, Indiana Univ. Press, Bloomington, 1971. pp. 5-13.
- 18) 全應烈, 前揭論文, p. 431.
- 19) 林熙喆, 分斷後 北韓經濟体制形成 및 變遷過程研究, 国土統一院, 1977.
- 20) 1968.4.22.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金一報告.
1968.4.25. 最高人民會議 第4期第2次會議 財政相, 尹基福報告.

- 21) 그들自身の 發表에 의하면 1957-60 年の 工業成長率이 36.6% 인데 1961-70 年の 그것은 12.8%이다.
北韓經濟統計集, 国土統一院. p. 67.
- 22) 統一朝鮮年鑑, 統一朝鮮新보사 刊, (1965-66).
- 23) 「대안의 사업체제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金日成, 著作選集 第3卷, 1968, pp. 421-437.
- 24) 前掲 北韓統計集, p. 840.
- 25) 前掲 北韓統計集, pp. 644-666.
- 26) 南應祐, 價格論, (서울, 博英社, 1974), p. 390.
- 27) 金日成, 金日成著作選集 第2卷, (평양:로동출판사, 1968), p. 531 「우리당 정책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지침 이며…… 모든 현상은 다 이자를 가지고 짚 수 있습니다」
- 28) 金日成, 金日成選集 第4卷, p. 127.
「계획은 법적성격을 띠며, 국가계획에 규정된 사소한 위반도 국가규율의 위반이 되며, 계획과제를 마음대로 축소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 29) 金日成, 金日成選集, 第4卷, p. 28
「만일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겠으면 실행하지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허위보고는 말아야겠습니다. ……실행하지도 못하고 공명심에……」
- 30) 金日成, 金日成選集, 第4卷 p. 513.
「우리당원들은 ……일을 열성적으로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사업

을 과학적으로 분석 할줄 모르는데서 오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
많습니다」

- 31) 金日成, 金日成著作選集 第4卷, (평양 : 로동출판사 .1968) p. 170.
- 32) 金日成, 金日成選集 第4卷(평양 : 로동출판사, 1960), p. 505.
- 33) 金日成, 金日成著作選集 第4卷(평양 : 로동출판사, 1968). p. 260.
- 34) 金日成, 上掲書, p. 257.
- 35) 南炫旭, 前掲論文, p. 86.
- 36) 김종인, 前掲論文, p. 31.
- 37) 趙錫俊, 組織論, 法文社, 1973. p. 150.
- 38) 李承潤, 南北韓 國民消費生活水準의 比較, 国土統一院, 1977.
- 39) THE MILITARY BALANCE (1977-1978),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p. 60 同誌에서는 \$ 1 =
2.05원 (北傀貨)으로 보고 있으며 適切한 換率이 不在함을
단서로 달고 있다.
- 40) 社会主義國家의 共通現象인바, 北韓에서도 農産物價格의 低評價와
工産物價格의 高評價로 인해 農産物 供出價格을 時價의 25%
로 集團農場에서 強制收買하므로 나머지 75%는 實質的인 租稅
로 吸收되는것으로 國民에 대해 착취가 되는것이다.
* 李承潤, 前掲論文.
- 41) THE MILITARY BALANCE (1977-1978), p. 82.
- 42) 경제사전,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0. p. 79. 재인용.
- 43) 安秉永, 北韓政治엘리트 構造分析, 亜細亞研究 第50号, p. 73.

1977年12月の改閣에 前国家計劃委員會 委員長이었던 李鍾玉
을 國務總理에 앉히는 것은 그 한례가 될 것이다.

44) J. Tinbergen, " Do Communist and Free Economics Show
a Converging Pattern? " Soviet Studies April, 1961.

* 林熙喆, 前掲論文 附錄參照

45) 루마니아는 1971年11月 EEC와 織物類交易協定을 締結했으
며 IMF, IBRD 에 加入했고, 유고는 1976年에 東歐諸國으로서
唯一하게 유럽投資銀行에서 長期信用供与를 받았음.

* 李承潤, 共產諸國 經濟體制의 變遷過程研究, 国土統一院, 1977.

46) 소련의 코쉬긴은 第25次 党大会(1972年)에서 貿易擴大를
強調했으며, 불가리아도 7次5個年計劃에서 1990년까지 輸出의
比重을 크게 強調하였다.

* 李承潤, 上掲論文.